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이성교제를 하는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

The Effect of Dat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Koreans Focusing on the Single Elderly

서울 오산고등학교
강 사 이 예 종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장 진 경

Osan High School

Lecturer : Lee, Ye Jo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Jang, Jin 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ating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dating, intimacies with a date, and difficulties on the process of dating,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those variabl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2 elderly who were more than 60 year ages, currently date with opposite sex, lived in Seoul.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necessity of dat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age, religion, health, family closeness. (2) The intimacies with a dat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economic provider. (3) The difficulties on the process of dat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gender, age, health, the eldest son who live together. (4)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imacies with opposite-sex friends, family closeness, residing with the couple of the eldest son, health, use of social education/welfare services, and religion.

주제어(Key Words): 홀로된 노인(the single elderly), 이성교제(dating),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의료기술 및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7.3%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1995년 이후 5년 동안 노인 인구는 27.7%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그러나 노인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¹⁾ 노인 세대에게 건강문제, 경제문제, 여가활용문제,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독과 소외문제이다. 특히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은 일반 노인들의 고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희정, 1996).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에서 '배우자의 죽음'이 제 1위로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73점이었고(한국일보, 2000. 10. 10), 영국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에서도 45세 이상의 독신남자는 결혼한 남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의 독신여성 또한 사망 위험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1. 08. 24).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조사에서도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고독과 불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임춘식, 1997). 따라서 정서적 부양의 주 제공자인 배우자를 대신해 심리적 지지와 애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이의 이성교제나 성(性)에 대한 관심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성적 관심은 없어진다고 믿거나 노년기의 이성교제, 재혼, 성(性)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사회의 시선 또한 부정적이었다. 반면, 여러 연구들(박형규, 2001; 이창은, 2000; 전현식, 2000; 최복란, 1996) 이나 최근 노인들의 성(性)문화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²⁾을 보면, 실제 노인들은 과거에 비하여 이성교제나 성(性)에 대해 적극적인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세대구성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독거노인 가구(2.9%p)³⁾와 노인 부부만 구성된 가구(5.4%p)는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이는 노인부양 문제와 노인의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과거보다 오랫동안 노년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별과 이혼·미혼 등으로 양산되는 독신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노년기가 길어져 부부간의 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노후의 심리적 지지자를 잃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여생을 힘들게 보내게 된다.

주성수·윤숙례(1993)의 연구에서는 홀로 사는 독신집단이 현재와 과거 삶 모두에서, 부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만과 신체질환·종지 않은 건강상태·빈번한 우울증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녀에게 더 의존하려는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로움과 소외감은 노부부 단독세대나 독거노인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 독신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더라도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이나 의견차이 또는 대화의 부족으로 고독감

1)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 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영국과 독일이 45년, 일본이 24년인데 비하여 한국은 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원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s of Population, 1994; 윤명희, 2000에서 재인용).

2) 동아일보(2001/5/23), 70대 할머니-할아버지 30% 성생활 가능.

한국일보(2001/1/17), 노인 18% '이성친구와 性관계'.
문화일보(2000/8/8), 노인 55% '단 청춘, 이성친구 필요'.
한국일보(1999/2/11), '나 홀로 노인' 들은 짝을 원한다.
조선일보(1995/4/4), '외로운 노인끼리 의지' 60대 재혼 많아졌다.

KBS 9시 뉴스(2001/5/23), <김중취제> 결혼관이 바뀐다- '살맛 나는 노인 커플'.

SBS 토요일스페셜(2000/7/1), 아름다운 性 9회, '아름다운 동행-노인의 性'.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1996), '65세 고개 드는 성'.

3) p: 증감차이를 나타냄. 예) 2.9%p: 1995년보다 2000년 현재 2.9%만큼 증가함.

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된 노인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대화상대자와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서로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인물은 동성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는데, 홀로된 노인의 경우 이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박재간, 1973). 따라서 홀로된 노인들이 동일한 세대를 살아온 노인과의 이성교제나 재혼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임춘식·최복란, 1997). 최근에는 많은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노후의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다. 1998년 '한국 노인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전화 중 이성교제 및 소외관련 문의는 225건으로 전체의 15.9%에 달했으며, 성생활에 대한 고민도 9.4%나 되었다(한국 노인의 전화, 1999).

노년기 이성교제의 필요성이나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이성교제 실태나 태도(전차수, 1998; 전현식, 2000; 최복란, 1996),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최정애, 2000), 노인의 성이나 성생활에 관련된 연구(김현철, 2000; 문장합, 1999; 박승국, 1999; 박형규, 2001),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이창은, 2000)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경향은 노인의 성생활 또는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나 실태 파악 정도이며,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홀로된 노인들의 이성교제의 필요성과 실제 이성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교제상대와의 친밀감이나 애정·관계 만족도가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홀로된 노인들의 배경 변인과 이성교제 필요성,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이성교제시 어려움으로 구성된 이성교제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 변인들이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사

회적 관심 증대, 노인의 이성교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1)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필요성

이성교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전차수, 1998; 전현식, 2000; 최복란, 1996; 최정애, 2000)는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재혼은 늘어가는 추세이며 홀로된 노인들의 다수가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생의 동반자로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는 홀로된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현식, 2001), 최복란(199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해 60·70대 남성 노인의 8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 노인의 78%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좋은 대화 상대자를 찾기 위해', '재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정애(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이성교제 필요성이 더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27.0%(남성 46.3%, 여성 18.5%)가 이성과 교제한 경험이 있었고, 연령대 별로는 70대, 60대, 80대 이상 순이었으며, 이성과의 교제경험이 없는 130명(73.0%) 중 과반수가 넘는 67명이 앞으로 이성교제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임춘식·최복란(1997)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7%가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차수(1998)와 박정화(1998)의 연구에서도 대상자 전원이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어 홀로된 노인들이 자신의 이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홀로된 노인이 이성교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유인 고독감과 외로움 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성'에 관한 관심이다. 노년기의 성생활이란 성(性)관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손잡기·포옹·입맞춤

등의 친밀한 관계 표현방법을 통한 피부접촉과 교감, 자식이나 형제·동성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배우자 역할 등 따뜻한 인간애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증대에 중요하다. 이창은(2000)의 연구에서는 '멋있는(예쁜) 이성을 보면 여전히 좋고 흥분되는가'라는 질문에 남자 노인의 84%, 여자 노인의 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72%가 성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성교제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국민일보, 2000. 12. 01). 실제로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과 성생활을 하는 노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박형규, 2000; 전현식, 2001).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홀로된 노인들의 대부분이 고독감과 외로움의 대안으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상당수 노인들이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과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또한 별거 및 이혼의 증가로 홀로 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자녀수의 감소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홀로된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애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남녀간의 이성교제는 우정보다는 애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Lloyd, 1987), 노인의 이성교제는 성(性)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육체적인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이성친구가 생김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므로(하영갑, 1998), 홀로된 노인의 활발한 이성교제는 노년기 고독감 해소와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이성교제 필요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홀로된 노인의 이성친구에 대한 친밀감

노인에게 있어서 친밀한 친구관계 유지는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대한 대안 기능을 한다(하근영·홍달아기, 1999). 노인은 종종 걱정이 있을 때나 고독할 때 친구를 원하며, 편안함·신뢰감·충고 등과 같은 감정적 지원을 주고받

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Adams, 1986). 노인의 친구관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이가옥, 1994; 이정애, 1998)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친밀감과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친구관계가 좀 더 활발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idis & Davies, 1990; Johnson & Troll, 1994; Wright, 1989).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도 여성은 주로 감정적 몰입이나 자기노출(self-disclosure), 애정표현 등의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반면, 남성은 함께 활동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갖는 등 도구적인 도움이나 행동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ncian, 1985). 결혼상태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은 이혼한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idis & Davies, 1990).

노년기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접촉빈도는 감소하지만, 애정적 친밀감은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의 친구관계에서는 상호작용의 양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전혜정, 1993; Arling, 1976). 또한 친밀성과 자기노출과 같은 질적인 면이 외로움과 더 많은 관계가 있으므로(Reisman, 1986) 홀로된 노인의 이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과의 거주근접성이나 접촉빈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과 이성관계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과 애정, 만족감 정도를 의미하는 관계의 질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특정상황에서 우정은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Crohan & Antonucci, 1989; Jerome, 1990; O'connor, 1990). Adams(1985)는 이성간의 우정을-애정(romantic)과 자애(charity)-두 가지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자애(charity)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를 해주거나 실제로 도와주는 것으로, 애정 없는(non-romantic) 이성간의(cross-sex)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코너(O'connor, 1993)는 허약한 노인들의 동성친

구관계와 이성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동성간의 우정과 이성간의 우정의 다른 특징을 밝혀냈다. 노인 응답자들의 이성간의 우정은 비록 성적인 요소가 없고 실질적 보살핌의 주요 자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동 불가능한(housebound) 노인의 경우 이성간의 우정을 더 가지고 있었고, 거동이 자유로운(nonhousebound)노인의 경우 동성간의 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시 어려움

이성교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노력들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김시업, 1999).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적인 관념이나 전통적인 관습 등 사회 전반적인 풍토로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홀로된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거나 노혼(老昏)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이나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이목, 자녀의 이해부족이다. 최정애(2000)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이성교제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성격 차이·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자녀의 이해부족·데이트 비용의 부담·의사소통의 어려움·성적인 행동과 관련된 어려움·관심사의 차이 순으로 응답했다. 전현식(2001)의 연구에서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은 사회적 이목(29.6%)을,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나이가 많음(28.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성교제 중인 남자 노인의 28.95%와 여자 노인의 31.25%가 사회적 이목을,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남자 노인의 경우 41.5%가 나이가 많음을 여자 노인의 35.7%가 자녀들의 반대를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최복란(199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60대·70대 남자노인의 경우 '데이트 비용 부담'을 이성교제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 노인의 경우는 이성친구를 육체적 관계까지로 희망하고 있지만, 여자 노인의 경우는 육체적 관계보다는 대화상대나 다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교관계를 원하거나 포옹이나 입맞춤의 가벼운 접촉까지 정도로 한정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애심, 1998; 이윤숙, 1983; 최복란, 1996). 따라서 정신적인 면의 교제를 더 원하는 여자 노인에게는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이성교제시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성교제를 하는 홀로된 노인들이 이성문제에 대해 의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이성교제 상담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성교제에 관한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노인이 남성 63%, 여성 59.7%로 나타났으며(최정애, 2000), 최복란(1996)의 연구에서는 이성문제를 노인문제 전문상담가(37%)와 상의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족과 주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이성문제를 해결하기 원함을 알 수 있다.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따른 어려움은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더 나아가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시의 어려움을 심리적 복지감의 영향변인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일반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은 다차원적인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지표다.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여러 복지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들은 결혼만족도·부부역할만족도·직업만족도·우울·생활만족도·생활의 질·행복감·고독감·자존감 등이 사용되고 있다(김현지, 2000; 박수정, 1992; 성규탁, 1993; 장재정, 1987; 전영자, 1992; 하근영, 1998). 선행연구를 통해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감과 고독감이 더

낮다는 연구(이영화, 1997; 이종범·정성덕, 1985; 윤현희, 1994; 하근영, 1998; Pinquart & Sörensen, 2001)와 홀로된 여자노인이 홀로된 남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Lee·DeMaris·Bavin·Sullivan, 2001)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노인들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배우자 상실·건강약화·사회적 참여의 쇠퇴 등으로 심리적 행복감이 저하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맹희재, 1985; 이영화, 1997; 임선영, 1994; 하근영, 1998). 학력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므로 생활만족도는 높고, 고독감·소외감·우울감은 낮게 나타났다(김기태·박봉길, 2000; 이해경, 1996). 노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종교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소외감을 덜 느끼고 생활적응력과 행복도가 높아 노후생활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승덕, 1995; 김미숙·박민정, 2000; 최정신, 1999; 하근영, 1998). 그러나 홀로된 노인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조옥희·신효식, 1991). 경제상태는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김기태·박봉길, 2000; 박경란·제미경·오찬옥, 1995; 이영자, 1999; 정혜정·서병숙, 1997; 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실제 경제상태보다 홀로된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만족여부가 노후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경란·제미경·오찬옥, 1995; 이영자, 1999; 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대다수의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홀로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조옥희·신효식, 1991; 조황숙·조병은, 2000; 주성수·윤숙례, 1993).

2) 가족관계 변인

결혼상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윤현희, 1994; 장현·이철우, 1996; 홍숙자, 1992). 그러나 여자노인의 심

리적 복지 연구(정혜정·서병숙, 1997)에서는 70세 미만의 여자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고, 70세 이상의 여자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약화로 인한 수발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리양(Liang, 1992)은 독신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는 생활만족도가 낮으나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보다는 높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영희, 1995). 자녀와의 유대감에 따라서는 여자노인과 홀로된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양적·질적 결속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정적 결속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주령, 1990; 이해경, 1996).

3) 사회활동 변인

조황숙·조병은(2000)의 연구에서는 홀로된 여자노인의 사회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해경(1996)의 연구에서는 홀로된 노인의 생활만족에 사회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노인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감과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경숙, 1996). 더욱이 노년기에 상호 매력을 느끼는 이성과 보내는 시간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Kelly, 1983), 순조롭게 진행되는 장기간의 애정관계는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mper Bologh, 1981). 그러나 이성상대와 흥미나 관심·요구와 기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많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쳐 낮은 수준의 사랑과 헌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두 사람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Lloyd, 1987)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드워드(Edward)와 고든(Gordon, 1976)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친밀한 친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응답자 중 여자노인 12%와 남자노인 56%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성친구를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대인관계의 친밀성은 심리적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현식(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90.8%가 만족하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있어 절친한 친구는 사회적 적응과 고독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O'bryant, 1988). 노년에 이르러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친구관계를 통해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복지감에 좋은 영향을 준다(Atchely, 1988). 특히 동일한 세대를 살아온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홀로된 노인에게 정서적 부양의 주 제공자인 배우자를 대신해 심리적 지지와 애정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노인의 이성교제 변인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의 배경 변인, 이성교제 변인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현재

서울의 노인종합복지관(강북구, 강서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노인정·노인대학(강남구,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종로구 소재) 및 만남의 광장(동대문구 소재)에 참석하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홀로된 남녀노인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성교제를 하는 홀로된 노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나와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성교제를 숨기려하거나 복지기관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이 가능한 복지관과 노인대학·노인정·이성교제를 주선해주는 만남의 광장을 선택하였다. 먼저 기관에 의뢰한 후 조사에 응한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면접과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가 직접 대상을 면접하거나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한 후 본 연구자가 수거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조사자 2명이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을 하거나 설문지 배부 후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간은 2001년 8월 27일부터 2001년 9월 15일까지이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1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 기재 112부와 유배우자 41부, 미혼 2부를 제외한 총 162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 Cronbach' α , t-test, 일원분산분석, 던컨의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란 만 60세 이상의 남녀가 서로 원해 지속적으로(3번 이상) 만나 데이트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관계 변인·사회활동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이성교제 변인(이성교제 필요성·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이성교제시 어려움)에 관한 문항,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설문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별·연령·학력·종교·경제상태·건강상태를 포함한 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연령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경제수준인지도와 건강상태는 노인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하였다. 가족관계 변인은 노인의 결혼상태·동거형태·자녀와의 유대감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와의 유대감 조사도구는 경지영(2000), 이혜경(1996), 차성환(1999)의 연구를 기초로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 $\alpha=.85$). 문항의 예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겁다" 등이 있다. 사회활동 변인은 노인이 사회교육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종교활동·스포츠활동·사교활동·노인 모임활동 등의 총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활동의 빈도는 '전혀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성교제 필요성은 선행연구(박정화, 1998; 전차수, 1998; 최복란, 1996; 최정애, 2000)를 기초로 한 총 13문항으로 고독·외로움 2문항, 애정·친밀감 3문항, 성생활 인식 3문항, 경제 문제 3문항, 건강 문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5$). 문항의 예로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갖고 싶을 때', '성적욕구 해소와 만족스런 성생활을 위해' 등이 있다. 노인의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도구가 없으므로, 조황숙(2000)과 이정애(1998)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Cronbach' $\alpha=.89$). 각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과의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삶에서 그(그녀)와의 관계는 소중한다', '나는 그(그녀)에게 사적인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다', '나는 그(그

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이성교제시 어려움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방애심, 1998; 전현식, 2001; 최복란, 1996; 최정애, 2000)를 기초로 하여 주변과의 관계(자녀의 이해부족·사회의 이목 등)와 자신의 문제(성생활에 대한 부담감·데이트비용의 부담 등)영역에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 $\alpha=.72$)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경지영(2000), 조황숙(2000), 차성환(1999), 하근영(1998)의 연구를 기초로 긍정적인 5문항과 부정적인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86$).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는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들 중 부정적인 5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마음이 뿌듯할 때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슬프거나 낙담한 일이 자주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2.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본 조사대상자의 이성교제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다.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p<.01$), 종교($p<.05$), 건강상태($p<.01$), 자녀와의 유대감($p<.05$)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70세 이상보다 60대가,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성교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종교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을 형성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2)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	68	42.0
	여	94	58.0
연령	만60-64세	68	42.0
	만65-69세	62	38.3
	만70세 이상	32	19.8
홀로된 연령	만20-39세	26	16.0
	만40-49세	39	24.1
	만50-59세	47	29.0
	만60세 이상	50	30.9
학력	초졸이하	32	19.8
	중졸	30	18.5
	고졸	59	36.4
	대졸이상	41	25.3
종교	기독교	40	24.7
	불교	42	25.9
	천주교	28	17.3
	무교 및 기타	52	32.1
경제부양자	본인	102	63.0
	전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60	37.0
경제수준 인지도	상	32	19.8
	중	102	63.0
	하	28	17.3
건강상태	건강하다	109	67.3
	보통이다	39	24.1
	건강하지 못하다	14	8.6
결혼상태	사별	122	75.3
	별거	11	6.8
	이혼	29	17.9
동거형태	혼자산다	83	51.2
	장남부부	39	24.1
	그 외	40	24.7
자녀와의 유대감	상	57	35.2
	중	56	34.6
	하	49	30.2
사회교육/ 복지서비스 이용정도	상	54	33.3
	중	67	41.4
	하	41	25.3

* 자녀와의 유대감·사회교육/복지서비스 이용정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 M+SD 이상, 중: M-SD~M+SD, 하: M-SD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빈도수를 고려하여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 노년기에 오기 쉬운 무소속감을 극복하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덜 느껴 현실 생활 적응력이 높다고 한 김미숙·박민정(200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보다 이성교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태는 친구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사회활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윤희, 1994; 이정애, 1998; 하근영, 1998). 자녀와의 유대감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유대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이성교제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대화의 부족과 공동 관심사의 부재 등으로 가족관계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례를 들어 가족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한 전차수(1998)의 연구와, 성인 자녀와의 주관적 유대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병숙(1989)의 연구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경제 부양자($p<.01$)이다. 경제 부양자가 본인일때 이성상대와의 상호성·친밀감·애정·관계만족도 등의 질적 특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이성교제시 어려움은 5점 만점에 평균 2.73점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p<.01$), 연령($p<.01$), 건강상태($p<.001$), 동거형태($p<.05$)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이성교제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최정애(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노인은 이성친구를 육체적 관계까지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노인은 말동무 및 다과를 같이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방애심, 1998; 이윤숙, 1983; 최복란, 1996) 여자노인이 성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본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이성교제

(N=162)

변인	영역	빈도 (N)	이성교제 필요성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이성교제시 어려움		
			M	SD	D	M	SD	D	M	SD	D
성 별	남	68	3.85	.56		4.01	.63		2.53	.63	
	여	94	3.74	.70		3.96	.70		2.87	.64	
			t값 및 유의도			.45			-3.28**		
연 령	만60-64세	68	3.92	.55	B	4.04	.61		2.80	.62	B
	만65-69세	62	3.80	.63	B	3.97	.68		2.82	.72	B
	만70세 이상	32	3.45	.75	A	3.85	.76		2.41	.50	A
				F값 및 유의도			.90			4.96**	
학 령	초졸 이하	32	3.69	.76		3.92	.74		2.70	.68	
	중 졸	30	3.83	.63		3.93	.71		2.65	.60	
	고 졸	59	3.85	.48		3.99	.68		2.78	.63	
	대졸 이상	41	3.72	.76		4.04	.57		2.73	.71	
				F값 및 유의도			.27			.30	
종 교	기 독 교	40	3.76	.68	AB	3.96	.69		2.72	.81	
	불 교	42	3.60	.78	A	4.01	.68		2.71	.52	
	천 주 교	28	3.73	.72	AB	3.98	.69		2.88	.60	
	무교 및 기타	52	3.98	.34	B	3.96	.64		2.66	.65	
				F값 및 유의도			.06			.71	
경제 부양자	본 인	102	3.86	.61		4.09	.62		2.75	.67	
	그 외	60	3.66	.68		3.79	.71		2.70	.63	
				t값 및 유의도			2.79**			.46	
경제수준 인지도	상	32	3.66	.57		4.11	.61		2.64	.86	
	중	102	3.80	.63		3.99	.65		2.72	.61	
	하	28	3.84	.76		3.78	.75		2.85	.53	
				F값 및 유의도			1.87			.83	
건강 상태	건강하다	109	3.86	.50	B	4.05	.68		2.58	.61	A
	보통이다	39	3.74	.69	B	3.92	.59		2.91	.67	B
	건강하지 못하다	14	3.29	1.14	A	3.62	.68		3.33	.47	C
				F값 및 유의도			2.75			11.59***	

* P< .05 ** P< .01 *** P< .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연령에 따라서는 70세 이상 노인보다 60대 노인이 이성교제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 노인의 경우 홀로 된 기간이 70대 노인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에 대한 의리나 그리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미혼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녀나 사회의 시선을 좀 더 의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성교제시 60대 노인은 70대 노인보다 활동성이 좋

아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을 함께 함으로써 데이트 비용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재혼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성교제시 상대에게 원하는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노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건강이 노인의 활동과 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이성과의 접촉 빈도

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친밀감 역시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거형태에 따라서는 혼자 살거나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그 외 다른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성교제가 미혼자녀의 혼사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성교제시 어려움이 생기면 의논할 대상에 대한 응답으로는 혼자 처리가 78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동료와 상의 68명(42.0%), 가족 또는 자녀와 상의 14명(8.6%), 전문가와 상의 2명(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지도자와 상의한다는 무응

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게 이성교제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0.7%가 혼자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최정애(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이 본인이 이성교제를 한다해도 사회적 체면이나 자식들의 이해부족으로 자녀와 이성교제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거나 동년배인 친구와 의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

<표 3>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N=162)

변인	영역	빈도 (N)	이성교제 필요성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이성교제시 어려움		
			M	SD	D	M	SD	D	M	SD	D
결혼상태	사별	122	3.75	.69		3.97	.69		2.75	.64	
	별거 및 이혼	40	3.88	.45		4.01	.60		2.65	.70	
	t값 및 유의도		-1.07			-.32			.86		
동거형태	혼자산다	89	3.77	.67		3.97	.69		2.70	.66	A
	장남부부	39	3.86	.55		4.09	.70		2.53	.64	A
	그 외	40	3.74	.68		3.88	.59		2.97	.60	B
	F값 및 유의도		.35			.96			4.76*		
자녀와의 유대감	상	57	3.62	.68	A	3.96	.67		2.62	.74	
	중	56	3.79	.56	AB	4.01	.70		2.73	.60	
	하	49	3.96	.65	B	3.97	.64		2.85	.59	
	F값 및 유의도		3.73*			.07			1.63		

* P< .05 ** P< .01 *** P<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사회활동 변인에 따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N=162)

변인	영역	빈도 (N)	이성교제 필요성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이성교제시 어려움		
			M	SD	D	M	SD	D	M	SD	D
사회교육/ 복지서비스 이용정도	상	54	3.83	.58		4.15	.67		2.75	.73	
	중	67	3.84	.59		3.92	.66		2.71	.61	
	하	41	3.62	.78		3.84	.64		2.72	.62	
	F값 및 유의도		1.84			2.94			.04		

* P< .05 ** P< .01 *** P<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복지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이성친구와의 친밀감($\beta=.33$), 자녀와의 유대감($\beta=.30$), 동거형태 중 장남부부와 동거($\beta=.23$), 건강상태($\beta=.23$), 사회교육/복지서비스 이용정도($\beta=.20$), 동거형태 중 노인혼자($\beta=.15$), 종교 중 불교($\beta=-.16$)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심

리적 복지감에 대한 설명력은 52%였다. 이 중 가족관계 변인과 이성교제 변인이 각각 15%, 11%의 설명력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홀로된 노인이 가족관계와 이성관계에 만족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불교를 믿는 노인보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심 리 적 복 지 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 별	.08	.06	.14	.10	.11	.08	.13	.09		
	연 령	-.01	-.12	-.01	-.08	-.06	-.04	-.09	-.05		
	학 령	-.04	-.01	.04	.08	.04	.08	.04	.07		
	종 교	기독교	.10	.06	.05	.03	-.13	-.08	-.13	-.08	
		불 교	-.10	-.07	-.11	-.07	-.17	-.11	-.25	-.16*	
		천주교	.35	.19*	.27	.15	.09	.05	.08	.04	
	경제부양자	본 인	-.26	-.18*	-.16	-.11	-.06	-.05	-.16	-.11	
	경제수준인지도		.16	.18*	.05	.06	.05	.06	.06	.01	
건 강 상 태		.33	.39***	.25	.30***	.20	.24**	.20	.23**		
관계가족 변인	결혼상태	사 별		.05	.00	-.01	-.01	-.01	-.01		
	동거형태	노인혼자		.30	.21*	.27	.19*	.21	.15*		
		장남부부		.52	.32***	.47	.29**	.37	.23**		
	자녀와의 유대감			.31	.35***	.31	.34***	.26	.30***		
사회활동변인	사회교육/복지서비스 이용정도				.16	.24**	.14	.20**			
이성 교제 변인	이성교제 필요성							-.15	-.14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35	.33***		
	이성교제시 어려움							-.11	-.10		
상수		3.20		1.73		.99		1.15			
F ratio		4.61***		6.76***		7.29***		9.11***			
R ²		.22		.37		.41		.52			
R ² 의 증가량				.15		.04		.11			
D-W		1.72		1.96		1.97		1.98			

* P< .05 ** P< .01 *** P< .001 D-W : Durbin Watson 계수

가변수 처리→ 성별: 기준=남자, 비교=여자 종교: 기준=무교 및 기타, 비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경제부양자: 기준=본인, 비교=그 외 동거형태: 기준=그 외, 비교=노인혼자, 장남부부
결혼상태: 기준=별거 및 이혼, 비교=사별

또한 노인이 건강할수록 행복감은 많이, 우울감은 적게 느끼고 있어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박민정, 2000; 하근영, 1998).

가족관계 변인에서는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차수(1998)의 연구에서 자녀와 동거한다고 해서 소외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나 친밀감, 공통된 관심사나 대화 등의 관계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성인자녀와의 주관적 유대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므로(이혜경, 1996; 정혜정, 1998) 심리적 만족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거형태에 있어서도 장남이외의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보다 장남 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들, 특히 큰아들과의 동거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이다(박경숙, 2000; 박형규, 2000). 한편 장남 부부의 동거 다음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젊은 세대의 노부모 부양 의식 약화와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자녀세대와의 동거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져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경혜·윤순덕, 2001). 따라서 자녀세대와 갈등을 겪으면서 동거하기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다는 의식의 변화로 생각된다.

사회활동변인에서는 사회교육이나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우복(1993)의 연구와 사회활동참여가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화(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노인은 사회교육이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회역할을 획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교제 변인에서는 이성친구와의 상호성·친밀감·애정 등 질적 관계가 만족스러운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밀성 같은 질적 속성들이 접촉빈도 및 교제기간과 같은 양적 속성들보다 노인의 생활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성규탁(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성과의 관계에서 노인이 평가하는 친밀함과 교제의 즐거움이 클수록, 주고받는 도움이 클수록 홀로된 노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감소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노인은 이성친구와 여가나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감정과 비밀을 털어놓는 등의 자기노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인은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첫째, 노인의 이성교제를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 노인보다 60대 노인이, 종교가 있는 노인보다 종교가 없는 노인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자녀와의 유대감이 낮은 노인의 이성교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해지고 가족원수가 점점 감소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더 이상 가족은 노인의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소외감,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서로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대상은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년배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홀로된 노인에게는 배우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성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활비를 조달하는 노인의 경우 이성상대와의 친밀감이나 애정, 관계만족도 등의 질적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인은 그만큼 생계에 자신이 있고 용돈에 대해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성교제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보다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이 이성교제시 느끼는 어려움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70세 이상 노인보다 60대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혼자 살거나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그 외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더 많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노인은 정서적인 면을 원하는 반면 남자노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여자노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 60대 노인이 이성교제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재혼가능성과 파트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년기의 건강은 활동성이나 의욕, 자신감과 연관되어지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문제는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즉, 이성교제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노인과 성인자녀는 평소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요인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줄 때 홀로된 노인이 안정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유대감, 동거형태 중 장남부부와 동거, 건강상태, 사회교육/복지서비스 이용정도, 동거형태 중 노인혼자, 종교 중 불교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은 홀로된 노

인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성교제 변인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관계 변인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족간의 친밀한 유대는 노인의 생활을 더욱 안정되게 하는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을 충족하고 정서적으로 지지 받기 원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 시켜주기가 어렵다. 오늘날 홀로된 노인에게 있어서 이성교제란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홀로된 노인이 이성교제를 통해 노후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건강한 노인의 고령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홀로된 노인들이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눌 수 있으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된 노인이 이성교제와 성(性)생활을 하거나 재혼의사를 밝히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좋은 관계로 이끌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나 주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자신도 감추려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끝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이성교제 특성이나 행동원리 등에 관한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이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유의하게 나타남으로,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를 준비할 수 있고 이성교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나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훈련,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년기 이성교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홀로된 부모의 이성교제나 미래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

도록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노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스컴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이성교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지영(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정도와의 관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승덕, 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 *한국노년학*, 17(2), 17-35.
-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김윤정(2000).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현철(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621-647.
- 박승국(1999). 노인의 성생활과 건강관련 체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 석사학위 논문.
- 박형규(2001).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방애심(1998).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 서병숙, 김은진(1996). 홀로된 여성노인의 재혼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16(2), 53-66.
- 윤명희(2000). 홀로된 노인의 생활실태가 재혼욕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참여 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동덕여대 석사학위 논문.
- 장석주(1997). 가족해체와 성윤리. *현대사회와 성윤리*. 제8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서울: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 전차수(1998).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노혼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 전현식(2001). 혼자된 노인의 성생활욕구태도와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 정혜정(1998).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3), 74-89.
- _____,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2), 49-70.
- 조황숙(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주성숙, 윤숙례(1993).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간의 일반 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3(1), 55-62.
- 최복란(1996). 노인의 이성교제 태도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최정애(2000).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하근영(1998). 노인의 친구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 하영갑(1998). 홀로된 노인의 재혼을 방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 진주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Adams, R. G. (1985). Normative barriers to cross-sex friendship for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25, 605-611.
- Arling, G. (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Th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757-768.
- Connidis, I. A & Davies, L. (1990). Confidants and companions in later life: The place of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Gerontology*, 45, 141-149.
- Edward, A. P. & Gordon, K. B. (1976).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s of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39-747.

- Gary R. Lee, Alfred DeMaris, Stefoni Bavin & Rachel Sullivan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depressive effect of widowhood in the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6(1), 56-61.
- Liang, J. (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 100-108.
- Lloyd, S. A. (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36, 290-294.
- Martin Pinguart & Silvia S. Rensen (2001). Gender difference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6(4), 195-213.
- Nancy R. Hooyman & H. Asuman Kiyak (1996). *Social gerontology: Love, intimacy, and sexuality in old age*(4th ed.). Boston: Allyn & Bacon.
- Pat O'Connor (1993). Same-gender and cross-gender friendships among the frail elderly. *The Gerontologist*, 33(1), 24-30.
- Sanderson, C. A. & Cantor, N. (1997). Creating satisfaction in steady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personal goals and situational afforda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424-1433.